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8
2025.10.20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각국 제6.2조 협정 확산, 탄소배출권 수요 5배 급증 전망
-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 연기 결정
- 인도네시아, 4년 만에 국제 탄소시장 재개, 수출 촉진 규정 도입
- 필리핀, ETS와 탄소세 결합한 'cap-and-invest' 탄소가격제 추진
- EU, COP30 앞두고 '글로벌 기후·에너지 비전' 발표
- EU, '글로벌 유럽' 기금으로 탄소국경세 부담 완화 지원
- 볼보·헨켈 등 131개 기업, EU 2040년 탄소감축안 공식 지지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각국 제6.2조 협정 확산, 탄소배출권 수요 5배 급증 전망

파리협정 제 6조의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프로젝트 기반 감축량 수요는 현재보다 5배 이상 커질 전망이며, 이 중 대부분이 규제 시장 (compliance market)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됨.

글로벌 원자재 기업 Trafigura와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OIES)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반 탄소크레딧의 연간 수요는 2024년 약 1.4억 톤에서 2030년 7억 톤 이상으로 증가될 전망

보고서는 특히 제 6조에 따라 규제 적격 크레딧이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영향력이 자발적 크레딧에서 규제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 밝힘.

국제적으로는 60개국 이상이 참여한 100건 이상의 제6.2조 양자협정이 체결 및 추진 중이며, 여러 정부는 2030년까지 총 8,700만 톤의 제 6조 크레딧 구매를 약속함.

또한 국제항공의 탄소상쇄제도 (CORSIA) 및 국제해사기구 (IMO)가 추진 중인 해운 부문 탄소감축 메커니즘 등 부문별 제도 역시 규제 기반 크레딧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다만 프로젝트 개발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 부족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크레딧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 연기 결정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넷제로 프레임워크 (NZF) 채택 결정을 1년 연기함.

NZF는 5,000톤 이상 선박의 연료 탄소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이 배출권 (Compliance Unit)을 구매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글로벌 해운 탄소거래제. 당초 2027년 발효, 2028년부터 수익 징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연기로 일정이 재조정될 예정

이번 결정은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 등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되며, 일부 전문가는 정치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NZF의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

이는 국제 해운 탈탄소화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10월 20~24일 예정된 기술 회의에서 NZF 수익 분배 및 인센티브 구조 등 세부 설계가 다시 논의될 예정



인도네시아, 4년 만에 국제 탄소시장 재개, 수출 촉진 규정 도입

인도네시아가 4년 간 중단되었던 국제 탄소거래를 재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새 규정 '2025년 제110호'는 배출권 거래, 부과금, 성과기반 지급 체계를 명확히하고, 파리협정 제 6조에 따른 국제 탄소 이전을 명시적으로 규정, 이중계산 방지를 위한 상응 조정을 포함함.

본 규정은 시장 및 비시장 기반 메커니즘 모두에 적용되는 탄소 가격제도를 마련하고, 인도네시아의 감축 노력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정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가 국내외 기준에 따라 생성된 탄소크레딧의 거래를 촉진할 것임을 명시하고, 기존 불확실했던 인도네시아 탄소크레딧의 적격성·규제·과세 문제를 해소해 탄소 거래 정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필리핀, ETS와 탄소세 결합한 'cap-and-invest' 탄소가격제 추진

필리핀이 배출권거래제 (ETS)와 탄소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cap-and-invest' 탄소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

cap and invest 제도는 우선순위 산업에 절대적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동시에,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기후자금을 활용, 탈탄소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환경 성과와 정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동 제도는 파리협정 제 6.2조 · 6.4조 국제감축 크레딧 조정 절차와 연계될 예정

필리핀은 2026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내 탄소시장 연계와 역량 강화를 주도할 전망



EU, COP30 앞두고 ‘글로벌 기후·에너지 비전’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기후 및 에너지 비전’을 발표하며, COP30 기후 회의를 앞둔 EU의 전략을 제시

동 비전 문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확대, 기후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금융 동원, 신흥 녹색 기술 시장에서의 유럽의 역할 확보를 약속함으로써 파리협정에 ‘정치적 추진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함.

EU는 청정 기술 제조 역량을 확대해 2030년 중반까지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2035년까지 연 3,000억 달러 (약 427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조성할 계획

또한 탄소가격제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기후정책의 핵심 도구로 유지하며,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기후 외교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EU는 이번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패권”을 외교와 무역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국제사회 내 기후금융 · 탄소시장 · 청정기술 수출을 주요 수단으로 내세움.



EU, '글로벌 유럽' 기금으로 탄소국경세 부담 완화 지원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CBAM을 앞두고,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

EU는 CBAM을 통해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 등 역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할 예정. 브라질, 인도 등은 동 조치가 개도국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우려를 제기

이에 EU는 2028~2034년 예산에 포함될 예정인 2000억 유로 (약 332조 원) 규모의 '글로벌 유럽' 개발 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 밝힘.

EU는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청정산업 투자와 기술협력으로 상호이익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

또한 EU는 기업들을 에너지외교에 적극 참여시키고, 중국의 배터리·태양광 등 녹색기술 제조 지배력에 맞서 해외 청정기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 밝힘.



볼보·헨켈 등 131개 기업, EU 2040년 탄소감축안 공식 지지

볼보, 헨켈, 덴마크 상공회의소 등 131개의 기업, 투자자, 비즈니스 단체 연합이 유럽위원회의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안을 공식 지지하며, EU 지도자들에 이를 승인할 것을 촉구

공동 서한에서 서명자들은 산업 재투자 및 청정 기술 도입 가속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확실성의 신호로서 90% 감축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힘.

연합은 저탄소 제품 수요 확대, 전기화 가속, 청정 투자 접근성 확대 등 구체적 개혁을 요구

산업 탈탄소화를 지원할 유럽 경쟁력 기금 (European Competitiveness Fund) 및 산업 탈탄소화은행 (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의 추진 또한 촉구

10월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는 2040년 목표와 함께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의 논의가 예정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